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8월 12일(주일) 제1209호



청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청년 660명 참석 꿈꾸는 청년들 "말씀 듣는 것보다 흥분되는 일 없다"

2018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집회(이하 The One 집회)는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이유를 발견한 축복의 장이었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청년 660여 명이 부르짖는 소리가 전주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집회 시작 전부터 달궈진 열기가 집회 마지막 날까지 전혀 사그라지지 않았다.

강동의 형제(전주영광교회)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흥분되는 일은 없다"면서 "이번 The One 집회는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장이었다"고 고백했다.

대학청년본부장 김승수 목사는 '새로운 꿈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김 목사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승진보다 더 좋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꿈을 꾸라"고 권면했다.

배상민 교수(KAIST)는 '창의적 디자인과 그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배 교수는 "무엇이든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The One 집회에서는 주옥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선포됐다.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 교회) '꿈',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믿음의 의미', 이상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자존감, 하나님 앞에서 확립된 마음',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나의 달려갈 길', 임은미 선교사(KOSTA 강사) 'Leder

의 삶', 정진호 교수(평양과학기술대학) '통일, 역사의 비탈에서 서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청년들이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성교제', '이단' 관련 특강도 호응이 뜨거웠다.

손한길 형제(송정제일교회)는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웃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최성준 형제는 "늘 일터 환경에 불평했었는데 통일 이후 엔지니어로 북한을 섬기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니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서울역 쪽방촌에 '돌다릿골 빨래터' 개소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 개선, 일자리 통한 자활 효과

온누리복지재단이 수탁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서울역쪽방상당소에서 동자동과 후암동 일대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돌다릿골 빨래터' (용산구 후암로57길 17-7)를 개소했다. '돌다릿골'은 동자동과 후암동의 옛 지명이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서울시가 운영비를, KT그룹이 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온누리복지재단이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한다.

지난 7일, 돌다릿골 빨래터 개소를 축하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제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황창규 KT그룹 회장, 이재훈 담임목사(온누리복지재단 대표이사), 성장현 용산구청장,

쪽방촌 주민들이 참석했다.

돌다릿골 빨래터에는 30kg 용량의 세탁기와 건조기, 진공압축기가 갖춰져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연중무휴다. 침구류를 세탁하고 건조한 다음 진공으로 압축 포장해주는 서비스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소정의 교육을 받은 쪽방촌 주민 8명이 빨래터에서 일한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쪽방촌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한중희 씨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좋은 시설을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배기선 집사(강서공동체)는 "뽀송뽀송하게 세탁된 침구류를 받은 주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벌써부터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윤정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은 "빨래터라는 편의시설이 생긴 것 자체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차달수 본부장(온누리복지재단)은 "돌다릿골 빨래터를 통해 쪽방촌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8월 비전헌금

라오스, 일본 수해복구 지원

오늘(12일) 봉헌하는 8월 비전헌금은 라오스와 일본 수해복구를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라오스와 일본은 국가적인 재난을 겪고 있다. 일본 오카야마현은 지난달 쏟아진 폭우로 사망 220명, 가옥 파괴 5,074채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라오스는 지난달 24일경 댐이 붕괴되며 주민 1만 1천 명이 수해를 입었다.

봉헌찬양 및 중계영상 변경

8월부터 온누리교회 주일예배 봉헌찬양이 '주 은혜임을(주 나의 모습 보네)'로 변경됐다. 또한 찬양할 때 스크린에 가사 통자만 나오고 중계영상은 상영되지 않는다.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주목하려는 목적이 있다.

* 다음 주 신문(8월 19일자)은 여름휴가 관계로 휴간합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이 된 가족이 있다. 미얀마에서 온 사라와 가족들이다. 그들은 3개월 전 옷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치듯 미얀마를 떠났다. 그들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유만으로 온갖 핍박을 당했다. 따돌림과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온 가족의 몸과 마음이 찢기고 패였다. 그렇게 도망치듯 한국에 온지 3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사라와 가족들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심신의 상처를 완전히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마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남 3일 미얀마로 돌아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 미얀마에서 온 ‘사라와 가족들’

3개월 만에 다시 만난 사라의 얼굴이 몰라볼 만큼 밝아져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볼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참 예뻐다. 인터뷰 하면서 울기만 했던 사라의 어머니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모와 사모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한국 생활을 돌이켜 보면 웃음 짓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사라의 아버지 민아웅 목사도 생리라고는 없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가슴을 활짝 핀 모습에서 당당함이 느껴졌다. 옷 보따리 하나 들고 고국에서 도망치듯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옷 보따리 하나 들고...

사라의 아버지 민아웅牧사는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의 미얀마 현지 사역자다. 미얀마는 국민 85%가 불교도인 대표적인 불교국가다. 민아웅 목사님은 미얀마에서 미전도종족을 위한 기숙사 관리를 돕고 있었다. 사라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아 왔다. 마을에서 쫓겨나 외곽에 손수 지은 판자집에서 생활해야 할 정도였다. 사라(14세)와 요한(9세)이는 친구들에게 지독한 따돌림을 당했다. 중학교와 초등학교를 다니던 사라와 요한이는 그 학교에서 유일한 크리스천이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 어울리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았다. 괴롭히기만 했다.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른다. 급기야 사라의 머리카락이 듚성듬성 빠지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너만 예수 믿어서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놀렸어요. 죽을병이 분명하다고요. 암에 걸린 게 분명하다고 저주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저도 진짜 죽을병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도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딸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학교에서 친구들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민아웅 목사님과 아내 모와 사모는 속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살던 마을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가면 괜찮은데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사라(사진 가운데)와 가족들(좌),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한 미술관 나들이(우).

사라와 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NGO 더멋진세상이 그들을 한국으로 초대했다. 사라와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난 5월 사라와 가족들이 한국에 왔다.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평일에는 사라의 탈모치료를 받고, 주일에는 안산M센터에서 예배를 드렸다. 사라의 신학철 장로가 운영하는 피부과에서 탈모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거듭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다.

꿈에도 상상 못한 아름다운 나날들

“사라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꿈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온누리신문에서 사라와 가족들의 사연을 접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심을 다해 섬기기 시작했다. 헌신적으로 섬기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운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작심을 하고 나섰으니 치유와 회복이 없을 리 없었다.

사라와 가족들은 한국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다. 아니 꿈에서조차 상상해본 적 없는 아름다운 경험이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섬김이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지 봉사자들의 수만 봐도 놀랍니다. 가이드 및 재능기부자 10명, 피부과, 내과, 치과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한 성도 4명, 가정으로 초대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준 성도 4가정, 미얀마 아웃리치를 앞두고 민아웅 목사님을 초청한 순 등 총 1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사라와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모와 사모는 온누리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고맙다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대접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 명소를 모두 구경시켜주시고, 자녀들에게 피아노도 가르쳐주셨어요. 한국어를 가르쳐주시기도 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이야기를 모두 말하려면 하루도 부족할 거예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민아웅 목사도 한마디 거들었다.

“한국에 올 때는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어제 짐을 정리했는데 한 가득이더라고요. 모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복음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사라와 가족들이 미얀마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3개월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 신앙이 한층 성장하는 유익도 있었다.

“이제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부분을 찾을 수 없어요. 탈모를 치료해 주신 신학철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님 덕분에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될 테니까요.”

민아웅 목사도 목회자로 정말 귀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민 목사는 매주 주일 안산M센터 미얀마예배에 참석했다. 한 달에 두 번씩 설교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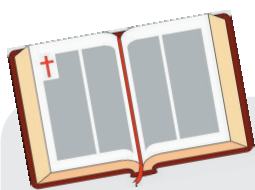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설교를 해본 것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을 살리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민아웅 목사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정말 귀하고 특별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을 떠나도 늘 여러분의 가족처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웃들의 문을 두들기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미얀마에 오신다면 저희 집에 방문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후원문의: 010-9027-4110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시리즈로 설교하는 동안 이 말씀을 매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영적 전쟁의 각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날 때 이 본문을 모두 암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과 진정한 평화

구약에는 전쟁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대나 현대나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역사가에 의하면 과거 3천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268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만 해도 약 2억 명 가량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전쟁들은 혈과 육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생존 전쟁입니다. 전쟁이야기는 구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마 10:34).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본인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반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 과정에서 고난 받으셨고 그 싸움의 절정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싸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무엇입니까? 적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평화인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식민 지배를 당할 때도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화 아닙니다. 싸워 이겨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쟁은 혈과 육으로 인하

여 싸우는 생존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며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악’은 ‘선’에 대한 반역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천사 중에서 타락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해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은 처음부터 대등하게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처음부터 존재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은 선에 대한 배반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악이란 선에 기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이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악을 보아도 선을 이용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은 처음에는 믿게 합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선을 이용하고 악용함으로써 악을 이룹니다. 악은 반드시 선에 기생합니다. 악은 선에 대한 반역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는 백성들에 대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님께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다. 구약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의 큰 세력들이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싸울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대하 20:15b).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사사롭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님 군대의 일원으로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을 보십시오.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싸우기 싫은데도 싸우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의 결정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군사들은 개인의 목적과 계획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항하는 공격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이 되어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부분으로 싸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며 이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아무리 힘들고 치열해 보이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여러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승리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민족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약 곳곳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때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깨어있다고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졸고 있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져있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으시다면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게하시다면 왜 세상이 어지러운지 모르겠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으로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

“여호와와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시 34:7).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위에 진을 치고 보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겔세미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천사가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도왔던 천사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지 못하는 사이에,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가족들과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천사에게도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한 보호하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의지와 선택으로 악의 길로 걸어간다면 천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인격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할 때 우리가 주를 경외하지 않는 걸음으로 나아간다면 천사들의 보호막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12절).

우리의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다 싸워주시겠지.” “나는 낫을 놓고 가만히 있기로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다 하십니다.”

물론 그런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졸고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알아서 싸워주시겠지’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을 하면

분노, 폭발하겠습니까? 다스리겠습니까?

화 참지 못하는 사회 ... ‘간헐적 폭발장애 환자’ 증가
감정 사인, 타임아웃, 나-전달법 등 건강한 분노표현 배워야

지난 2주 동안 서울 최고기온이 평균 37도나 된다.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사람들의 불쾌지수 또한 극에 달했다. 폭염의 영향인지 몰라도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사건사고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다.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지르고, 폭행하고, 남의 생명까지 빼앗는 끔찍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다. 왜 그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걸까?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그 방법을 살펴보자.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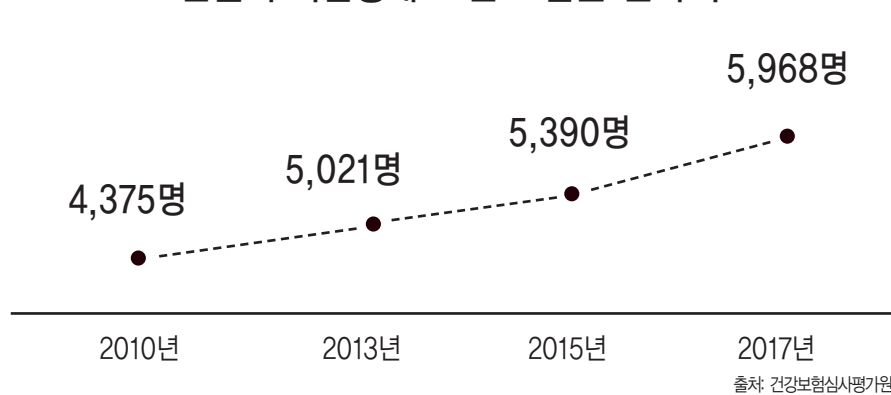
지난 7월 24일 40대 남성이 서울 강동구 한 편의점에 불을 질렀다. 이 불로 편의점 점주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그 편의점 단골인데 점주가 아는 척을 안 해서 불을 질렀다고 한다. 지난 6월에는 30대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결별을 통보받자 흥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들처럼 폭발적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다. 매년 ‘간헐적 폭발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분노조절장애’라고도 불리는 간헐적 폭발장애는 스스로 분노를 조절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는 증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간헐적 폭발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가 2010년 4,375명, 2013년 5,021명, 2015년 5,390명, 2017년 5,96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간헐적 폭발장애 증상은 있지만 진료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6천 명은 거뜬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간헐적 폭발장애를 촉발시키는 분노가 무엇일까?

분노(忿怒) 그것이 알고 싶다

분노(忿怒)란 ‘분개하여 몹시 성을 내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화가 난다’고 표현한다. ‘한이 맺혔다’,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화(火)에는 화난 것, 속상한 것, 억울하고 분한 것, 미운 것 등 수많은 정서적 의미가 담겨있다. 또한 화가 났을 때 한숨, 눈물,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든 증상을 포괄하는 용어가 바로 ‘한(恨)’이다. 표준어국어대사전에서는 한을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리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과 비슷하게 쓰이는 ‘울화’는 마음속이 답답해서 일어나는 화를 가리킨다. ‘화병(hwa-byung)’이라고도 한다. 화병은 우리나라에서 지은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미국정신의학회도 화병을 ‘문화특유의 증후군’으로 다루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 것일까? 그보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분노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사실이다. 즐거울 때 마음이 기쁜 것처럼, 화난 감정의 표현이 분노다. 분노하면 신체 기관들이 긴장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요되게 된다. 눈에 힘이 들어가고, 손과 팔 등의 근육이 긴장하고, 사고가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 그렇다보니 화가 난 상태에서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고를

간헐적 폭발장애로 진료 받은 환자 수



분노조절수준 자가진단테스트

1.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2.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3. 온라인 게임에서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4.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5.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7.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9.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10.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적이 있다.
12.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 개수

- 1~3개: 감정 조절이 가능함
- 4~8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함
- 9개 이상: 분노조절이 힘들고 공격성이 강함

일으킬 위험성도 커진다.

그렇다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노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물질적, 정신적)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어린이도 소유물(장난감이나 과자 등)을 부당하게 빼앗기면 울음을 터트리면서 분노를 표현한다. 성인들도 똑같다. 자신의 고유한 권리나 권한을 빼앗기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분노를 느끼게 된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표현하기

그렇다고 분노를 표현하면 안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꼭 필요한 인간의 정서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기만 하면 병이 생기기도 한다. 그 병이 바로 화병이다. 그래서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분노를 건강

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자신의 ‘감정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목소리가 떨리는 등 자신만의 분노 사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대처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타임아웃도 좋은 방법이다. 타임아웃은 갈등 상황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 다음 문제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이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처한 상황 등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화가 났을 때 사용하는 대화법도 있다 ‘나-전달법(I-Message)’이다. 나를 주어로 대화를 시작하면서 상대방의 행동(말)에 대한 구체적 진술과 그 행동에 따른 나의 감정상태를 전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에게 “나는 네가 약속 시간에 늦었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 화도 나더라”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성을 높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지지체계와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운동과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쌓여 있는 분노를 승화시키는 것도 좋고, 일기 쓰기, 하나님께 편지쓰기, 감사제목 쓰기도 탁월하다.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그 감정을 글로 옮기면 객관적으로 감정을 볼 수 있어 통제력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 자신의 감정을 배출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할 수 없다면 전문가를 찾아 상담 받을 것을 추천한다.

분노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비합리적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를 높이고, 신경을 과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는 외부 자극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다. 내가 분노했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떠올려 기록한다. 그 다음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내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적는다. 상당히 편향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스스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셨다. 결국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다. 분노 자체를 나쁘다고 평가하기보다 분노를 건강하게 다스리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도 화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창 4:6~7).

부부가 싸워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엡 4:26~27).

전문가 기고

분노를 다스리는 여섯 가지 전략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인생 숙제



남윤영 집사
(온누리회복사역, 국립
정신건강센터 의료부장)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한 갑(甲)질, 문지마 살인과 폭행, 보복 운전, SNS에서의 언어폭력, 인종 혐오와 차별, 학교 폭력 등을 일컬어 ‘분노 조절장애’라고 부른다. 성경에 나온 수천 년 전의 분노도 현대와 매우 비슷하다. 예를 들어 모세

는 동족을 학대한 이집트인을 죽였고(출 2:11~12),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에 대해 대제사장은 ‘참람하다’며 옷을 찢었다(마 26:64~65).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죽이기까지 하였고(행 7:54~60), 다윗을 두려워한 사울 왕은 화를 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삼상 18:10~12). 위에 언급한 분노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분노 자체를 불편해 한다. 그러나 때때로 자신의 분노는 정당하고 합당하며 거침없이 표출하기도 한다.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에 관해 양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분노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분노란 자신의 욕구가 저지되거나 어떤 일이 강요되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말한다. 분노는 약간 화난 것부터 격노나 격분까지 외적으로 표현되거나 고의적인 지연이나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처럼 소극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분노조절장애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공식적인 진단명이 아니다. 정신의학 진단체계에서 ‘간헐적 폭발장애’가 분노조절장애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진단인데, 공격적인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행동 폭발들이 수개월 이상 반복된다. 임상현장에서는 분노 증상과 공격성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이 흔하다. 왜냐하면 외상성 뇌병변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울증, 파괴적 기분조절부전장애, 양극성 장애(조울증), 인격장애(반사회성, 경계성), 알코올 중독, 마약중독, 폭식증 같은 질환에서도 분노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분노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대인관계를 손상시킨다. 분노는 타인에게로 옮겨가 복제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로 누군가에게 분노하면 상대방도 그 사람에게 불쾌함과 자신의 분노까지 표출하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 반응하는 수단이 나 자기를 드러내는 의사소통 도구로 분노를 사용한다. 한편 분노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증가, 뇌세포와 혈관 내벽 손상, 혈압 상승 등

돌연사 위험을 높이며, 혈중 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고 면역기능을 약화시킨다.

분노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는 좌절이나 불편함을 견디는 저항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 기질적으로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짜증이 많고, 민감하고, 쉽게 화를 낸다. 사회문화적인 환경도 분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 결과 성인이 될 때까지 좌절을 견디고,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한편 가족환경도 낮은 좌절 저항력과 분노 표현에 영향을 준다. 와해되거나 혼란스러우며, 정서적인 의사소통을 못하는 가족은 좌절을 견디거나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향이 있다.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하여

그렇다면 분노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제리 스카지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이란 책에서 분노를 통해 중요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며, 분노 뒤에 숨어있던 본질적인 감정을 발견할 수 있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가 무

(억제) 또는 진정시키는 방식으로 분노를 다룬다.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방법은 화난 감정을 적극적이지만 비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손해 없이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결국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존중해야만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억압(억제)하기가 있다. 이 방법은 분노를 마음속에서 억압(억제)하고 분노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억압된 분노는 종종 내면으로 향하고, 고혈압이나 우울증, 심할 경우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억압된 분노를 병리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수동적이고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끊임없이 남을 폄하하거나, 매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냉소적이며 적대적인 발언을 일삼는 행동들이 대표적이다.

내적으로 분노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외적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반응들, 호흡과 심장박동을 낮추고, 자신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정교하게 다듬은 것이 ‘이

반응을 보일 때가 많다. 문제 해결 자체보다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떻게 직면할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인내심을 잃지 않기 위해 문제를 다룰 계획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세 번째 전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분노는 중간과 정 없이 곧장 결론으로 건너뛰고 행동으로 표현된다. 분노로 인한 행동화를 예방하려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말들을 참고 천천히 생각해야 한다.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를 향한 분노의 근원과 그것이 말하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당연히 비난에 대해서는 방어적이지만 맞서 싸우지 말아야 더 큰 재앙으로 변하는 것을 막는다. 분노는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사람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웃어넘길 일도 지나치기 어렵다.

따라서 분노한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네 번째 전략이다. 다만 유머를 통해 직면한 문제가 그저 웃어넘길 일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문제를 보다 건설적으로 직면할 수 있어야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전략은 자신을 보호할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즉각적인 대응과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빨리 소진되며, 소진된 사람들은 분노에 취약하다. 스트레스와 소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그런 환경과 문화에 노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퇴근 후 15분 정도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전략은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분노를 중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권리, 즉 분노라는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포기가 곧 용서다. 용서하는 사람만이 자기 연민과 집착에서 벗어나 가해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용서 받을 가치가 없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는 선물이며, 피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이기도 하다. 상대방의 뉘우침과 상관없이 삶의 평안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는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한다.

분노는 인간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인생 숙제이다. 우리는 평생 분노를 조절하거나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때마다 분노를 다루는 성숙함의 결과로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더 많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분노를 견디고 이겨나가야 한다.

“분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런 포기가 곧 용서다.”

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녀는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온 경고 표시등을 통해 내 차의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아는 것처럼 분노도 자신의 내적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만약 내 안에 분노의 경고등이 켜진다면 이 분노가 병적인지 정상적인지 구별해야 한다. 성격이 변한 것처럼 갑자기 분노나 짜증이 늘었다면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트레스나 기저질환에 의한 병적인 분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상적인 범위의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를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지혜롭게 조절하는 것이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오래전부터 정설처럼 여겨진 ‘분노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기’는 위험하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근거로 악용하는 부작용이 있다. 자유로운 분노 표현은 오히려 분노와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문제들을 악화시키기까지 한다.

우리는 분노를 없앨 수 없으며, 분노의 원인인 상대방이나 사건을 피하지도 바꾸지도 못한다. 따라서 분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표현, 억압

완요법’이다. 분노가 생길 때 이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인 ‘트리거’를 찾아야 한다. 그 다음에는 트리거가 우리를 분노로 빠트리려는 것을 막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사고 구조를 재구성하는 ‘인지 재구조화’다. 이 방법은 분노 당시의 생각을 보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바꾼다. 분노 당시 내적으로는 저주나 종말, 복수 같은 용어가 자주 쓰이고, 다른 사람과 대화 도중에는 ‘결코’, ‘항상’과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이런 말들은 분노를 정당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게 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을(를) 가져야만 해”, “나는 ~~을(를) 요구한다” 등의 강한기대를 “나는 ~~을(를) 가지면 좋겠다”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인지 재구조화는 분노 대신 좌절, 실망 같은 정상적이고 덜 파괴적인 반응으로 이끌 수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문제해결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현실적이고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한 분노나 좌절은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동대문중랑공동체_ 오사카·교토



장선규 순장
(동대문중랑공동체)

쫄쫄 찌는 서울 날씨가 연일 34~35도를 육박할 때 우리가 도착한 오사카는 38~39도였다. 습도마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턱턱 막혔다. 그곳에서 키가 크고 흰철한 이철원 선교사님을 만났다. 우리보다 먼저 공항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계셨다. 우리를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연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잘 아는 사이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우리 공동체 결원 선교사인 이철원 선교사님은 오사카 CGNTV 팀장으로 근무 중이다. 10년 정도 CGNTV에서 근무하다 새로운 것을 준비하던 차에 2011년 일본을 방문했는데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체적인 응답을 경험하고 직업인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2013년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오사카 CGNTV로 오게 되었다.

오사카 CGNTV는 작은 사무실에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5명이 일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도쿄 CGNTV와 함께 일본 CGNTV 방송 콘텐츠의 1/3을 제작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작지만 잘 정돈된 사무실은 우리 방문단 27명이 들어가서 웅크릴까 두려웠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간식까지 챙겨 주셨다. 한쪽 벽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는 촬영

스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우리의 방문 일정도 함께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의 방문이 이분들의 바쁜 스케줄에 끼어들어 쉬는 날을 빼앗은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아웃리치 첫날 우리는 CGNTV 협력교회인 오사카 제자교회를 방문했다. CGNTV가 현지 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30분 정도의 짧은 일정이었다. 오사카 제자교회 도착해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를 안내해주던 선교사님까지 깜짝 놀랐다. 오사카 제자교회 식구들이 즉석에서 타코야끼와 야끼소바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둘러앉을 넓은 테이블도 준비하고, 찬양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아웃리치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오사카와 교토는 차로 한 시간 거리다. 우리의 아웃리치 둘째 날 사역은 교토 온누리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지금은 일본의 수도가 도쿄지만 과거 약 1,000년 정도는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다. 그래서 교토에는 고궁과 오래된 신사들이 많다. 우리는 교토 온누리교회 주일예배에서 할 찬양 인도, 특순, 간증을 했다. 말씀은 신원석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다. 평소 듣기 어려웠던 임희창 장로님과 박태원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이 은혜로웠고, 최상철 순장님의 찬양 인도도 매우 뜨거웠다. 무엇보다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던 것은 특순 때 보았던 일본인 성도들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일본어 찬양 가사를 열심히 외워서 아이들과 함께 특순을 했다. 우리가 준비한 특

정말로 귀한 사람들



동대문중랑공동체 성도들이 일본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전도용품을 만들고 있다.

순을 들던 몇몇 일본인 성도들이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 눈물을 흘리더니 안경까지 벗고 눈물을 닦아냈다. 콧물까지 흘리는 일본인 성도들을 보면서 몽클함이 전해졌다.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난생처음 본 사이였지만 찬양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서로 같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5%도 안 될 정도로 적다. 그래서 헌신된 일본인들이 정말로 귀하다. CGNTV의 아르바이트생 나카무네 카이는 6년째 CGNTV를 돕고 있다. 또 우자키 메구미는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시고, 본인도 신학대학교를 졸업해서 목회를 준비하고 있다. 교

토 온누리교회 아키라 전도사님은 내년에 한국 온누리교회 일본어예배를 섬기고, 햇볼트리나티신학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걷고 있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의 삶과 사역현장에 3일 동안 머물다 왔지만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 삶을 드려왔다. 앞으로도 그럴 계획을 가진 귀한 분들이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기대된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아멘.

부천 청년부_ 경기도 광주



석진영 형제
(부천 온누리교회)

2014년 여름 아웃리치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광주 '따뜻한교회'를 방문했다. 당시 막 중학교에 올라왔던 아이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청소년부 주축이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청년 선생님이 없는 따뜻한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됐다. 우리는 따뜻한교회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해서 건강한 청년이 될 때까지 아웃리치를 매년 실시할 마음을 품고 올해까지 이어져 왔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청년 선생님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번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셨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선포했다. 우리의 섬김도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팀이 늦게 결성되었다. 첫 모임을 가졌

을 때 아웃리치까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개인사정으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는 멤버들도 있었다. 멤버가 교체되기도 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웃리치 프로그램, 물품, 간식 등을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셨다. 기록적인 무더위에도 다치거나 아픈 사람 하나 없이 무사히 아웃리치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따뜻한교회 아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

아웃리치가 시작되기 전 따뜻한교회 예배팀을 섬기고 있는 한 고등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따뜻한교회에서 베이스 연주자로 섬기고 있던 학생이었는데 사정상 통기타 연주를 섬기게 됐다고 했다. 그런데 기타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살 돈이 없다고 했다. 스스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 학생과 함께 저렴한 가격의 기타를 찾아보기도 하고, 금액을 정하고 열심히 모아보라고 격려도 해줬다.

아웃리치 시작 날이었다. 따뜻한교회로 향하는 길에 한 기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를 발견했다. 그 이벤트에 선정된 사람에게 기타를 준다는 것이었다. 그 이벤트에 응모해서 내가 선정되면 그 학생에게 기타를 주고 싶다고

기타와 하나님



부천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따뜻한교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 선생님이 되어주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벤트 응모글을 남기고 따뜻한교회를 향해 발걸음 뒀다.

아웃리치에서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 나는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을 들으며 기타가 필요한 그 학생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타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아웃리치가 끝난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벤트 담당자였다. 그 기타 회사는 크리스천 사장님께

서 설립한 회사였다. 그 회사 관리자가 내 글을 보고 그 학생에게 기타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기타를 학생에게 전달해 예배에 사용 중이다. 그렇게 나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아웃리치였다. 앞으로도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경기A공동체 캄보디아



심성국 집사
(경기A공동체)

경기A공동체는 3박5일 동안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나는 우리 팀의 많은 사역과 선교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다짐과 목표를 가지고 참가했다. 아웃리치를 마치고 돌아보니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캄보디아를 바라보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가꾸고, 열매를 맺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해 오셨음을 깨달았다.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짧았지만 손과 발로 순종하고, 주어진 고난을 넘었을 때 만나게 되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또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기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진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다.

아웃리치 두 번째 일정이었던 ‘그로마흐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릴 때 받은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로마흐교회는 남의 집 뒷마당을 빌려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천막도 없이 땅바닥에 비닐을 깔고 드리는 어린이예배에는 무려 120여 명이 참석하고 있었다. 훈련된 현지인 스태프들(교회 대학생 성도로 구성)이 인도하는 야외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이날 우리 팀은 이 지역 가정들을 심방하며 전도 물품을 나눠줬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어



경기A공동체가 현지 어린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좌) 위십을 선보이고 있다(우).

린이들에게는 전도팔찌를 나눠줬다. 전도팔찌를 주면서 천지창조와 원죄, 예수님 보혈의 사랑, 죄 사함,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버벅거리며 설명했지만 그 또한 열심히 준비한 예배였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좋은신 하나님’을 율동과 함께 선보이기도 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설퍼지만 작은 미소로 기쁨을 전했다.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어린이들에게 줄 초코과자와 음료수, 하트모양 풍선, 왕관 풍선, 강아지 풍선 등을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촬영과 기록 담당으로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던 김종호 장로님이 허레벌떡 와서 음료수 몇 개를 달라고 하셨다. 전도팔찌에 대해 위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처럼



즈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고 대답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 아이들에게 주려고 음료수를 잔뜩 챙겨가셨다.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몰려왔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선물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손길에 정성이 더욱 가득해졌다. 주일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준비한 선물을 줬다. 앞에 서있던 나와 팀장님 외 3명이 차례대로 한 명씩 붙잡고 안아주면서 “쁘레야 예수 쓰렐란 레아(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고 말해줬다. 맨 뒤에 계신 팀장님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에게 안수를 하시며 축복기도를 하셨다. 나는 앞에서 어린이들이 순차적으로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했다. 어린이들도 기도 받는 일이 중요한 일인 것을 아는 것이 느껴졌다. 기도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이 다양했다. 수줍어하기도 하고, 피하려는 아이도 있고, 미소를 짓는 아이도 있었다. 팀장님은 그곳에 있는 어린이 120여 명 모두에게 안수하고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팀장님의 진심을 다한 짧지만 정말 진지한 축복기도를 보면서 또 한 번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강도가 넘치듯이 흘러가는 성령의 역사처럼 느껴졌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늘 중보하고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해 본다.

서초C공동체 방공학교, 항공학교



강은주 집사
(서초C공동체)

서초C공동체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에 있는 천군교회와 논산시 노성면에 있는 창공교회로 아웃리치를 갔다. 천군교회는 육군 방공학교에 있고, 창공교회는 육군 항공학교에 있다. 방공학교와 항공학교는 많은 장병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베이스캠프와 같은 곳이다.

아웃리치 시작 2주 전부터 ‘텐텐기도(10am-10pm)’를 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기쁨 부으심을 간절하게 구했다.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가 드러나 장병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무릎 꿇었다. 각자에게 찍지어진 장병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아웃리치 모든 일정을 인도해달라고 간구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총 79명이 참가했다. 팀원들은 영화관람(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장병 150명이 먹을 간식, CCM 가수의 간증과 찬양, 유년부 예배 섬김, 성인부 예배 섬김, SUM, 장병들과의 식사 교제 등을 준비했다.

창공교회에서는 군선교 세미나(주제: 군목의 역할), 주일예배 성찬식, 헬기와 장비 브리핑, 군 막사 체험 등을 했다. 창공교회 아웃리치는 군목인 최광수 목사님의 배려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최광수 목사님은 창공교회에 나오는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최광수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많은 장병들이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군목은 장병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장병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기도해줘야 한다. 최광수 목사님께서는 그 귀한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셨다. 우리는 항공학교에서 전역을 앞둔 병사의 소감을 들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기억에 남는다.

“시간! 생각보다 빨리 간다.”

그 장병이 전달하고자 했던 짧고 분명한 메시지는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눈앞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이었다.

그들을 만난 것은 나에게 큰 은혜였다. 젊고 건강한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세워져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일회적 섬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으로 섬길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서초C공동체는 아웃리치에서 돌아온 직후 장병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추진했다. 멘토로 섬겨줄 지원자를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

장병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서초C공동체가 육군 항공학교 창공교회 군목사를 축복해주고 있다.

다. 멘토링에 참여하신 분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많은 장병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준비된 지휘관과 장병들을 통해 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성령의 통로로 쓰임 받으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한다.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장의 비밀임을 알게 됐다. 아웃

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환경을 열어주셨다. 아웃리치의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장병들이 군대에서 복음을 아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병들이 되기를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요 3:16).

전도학교 아웃리치 _경기도 양평



강경숙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위로가 된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 위로, 지혜, 축복 등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온누리 전도학교 여름 아웃리치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대면하고 누리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었다. 경기도 양평 아웃리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양평 교동교회를 거점으로 7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도사역을 했다. 14일에는 전도학교 담당 목사님을 포함해서 9명을 선발팀으로 구성한 다음 온누리 전도학교 10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하루로 압축해서 전했다. 창조에서부터 구원, 결신에 이르기까지 스토리텔링 식으로 표현한 전도전문을 정리하고, 반복 학습을 하도록 했다. 실제 전도하듯이 발표도 했다.

교동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전도대원들 모두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따르던지 전심을 다해 주의 일에 참여하는 수강자들에게 너무 고마웠다. 교육성과가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였다.

장로님들이 술선수범해서 배운 것을 시연, 발표할 때 모두가 감동을 받았다.

괴곤한 줄도 모른 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을 맞았다. 이번에는 전도학교 사역자 50여명 전원이 양평으로 집결했다. 교동교회 성도들과 연합예배를 두 번 드리고, 지역복음화를 위한 합동사역을 시작했다. 사역은 본당에서 진행되는 내부사역과 외부에서 진행되는 전도사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교회 본당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영양제를 투여하고, 간단한 시력검사를 해주면서 1:1 매칭 전도를 했다. 그때 전도지 <최고의 행복>을 마을 어르신들께 전달했는데 전도지 제복처럼 전도자와 대상자 모두가 행복을 주고받았다.

외부 전도사역팀은 교동교회 성도들과 조를 짜서 마을을 돌면서 전도했다.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하게 다니는 팀원들을 보면서 “성도는 하나님의 자람입니다”라고 설교하신 양재경 목사님의 말씀이 실감났다. 외부 전도사역팀이 마을을 돌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이 이 지역 교회의 역사와 신앙공동체의 모습, 담임목사님의 섬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교회임을 알 수 있었다. 사역이 끝나고 전도했던 분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교동교회에 전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낸 하루를 마감하고 교회와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사랑이란 바로 이런 거란다”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전도대원들이 어르신께 가장 좋은 선물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고 속삭이듯 말씀하셨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잠깐 눈을 감았는데 교동교회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령화된 농촌의 주민들을 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애쓰시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연합의 기쁨을 맛보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아웃리치를 가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역자들과 시간을 함께 하

면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영적 원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온누리 전도학교가 전도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넘어서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주는 것이야말로 사명이자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한다. 전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존귀하게 되고, 춤추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

9월 16일 19기 전도학교 개강
문의: 010-3226-4364

허브공동체 브라질



이은호 형제
(허브공동체)

2018년 브라질 아웃리치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처음에는 선교가 너무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졌는데 한층 더 가까워졌다.

우리 팀은 브라질 포트벨류(아마존

지류 중 하나)에 위치한 작은 도시에 도착했다.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각 마을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스킵드라마, 워십 댄스, 합창, 악기 연주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했다. 모든 사역은 현지인들에게 다가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처음에는 아웃리치가 그저 힘들기만 할 줄 알았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이 있었다. 큰 회복의 시간이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역을 짧은 시간동안 준비하다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지를 알 수 있었다.

2주 동안의 꿈만 같았던 시간들을 보내며 시간이 야속했다. 우리의 사역은 브라질에서 2주



허브공동체 청년들이 브라질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동안 있었던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다시금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브라질이라는 특정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다면 한국에서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눠줘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웃리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심을 본다. 우리가 2주 동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안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배운 것 같다.

또한 한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비록 브라질을 떠날 때는 너무 아쉬웠지만 전과 달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삶에 임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웃리치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아래서 이루어졌음이 느껴진다. 무엇보다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끝까지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아마존에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함께했던 선교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는 뜻밖의 인연 같았던 진호 형, 예빈, 예진 누나, 이안 형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Gloria Deus!(하나님께 영광!)”

전문가 기고

광복절 앞두고 꼭 읽어야 할 우리의 역사

3.1독립만세운동과 유관순 열사 그리고 천안



임찬웅 집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문화재해설가)

태조 왕건이 ‘직산’을 자신의 영역으로 만든 이후 비로소 천하가 평안해졌다 하여 ‘천안(天安)’이라 하였다. 고려 말, 류청신이 호두 씨앗을 처음으로 심어 호두과자로 유명한 천안에는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다. 원나라에서 호두를

가져와 심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오랑캐 나라 북송’라 하여 ‘호도(胡桃)’라 불렀다. 천안은 삼남지방의 물산이 한양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에는 항상 사람들로 흥성했다. 그런 곳에 독립기념관이 있다. 아마 한번쯤은 가 봤을 것이다. 입구에서 전시관까지 거리가 멀어 더운 날이면 고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 다녀오고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 곳이었다. 규모를 크게 하는데 너무 신경 쓴 나머지 관람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나라를 되찾기 위한 선조들의 노력을 기억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독립기념관이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이 왜 천안에 있게 된 것일까? 천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상해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이동녕 선생,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 조병옥 박사도 천안 출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안은 독립기념관이 자리 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전국 어디서 오든 접근하기 쉬운 위치인 것도 이유이다.

태조 왕건이 머물렀다는 성거산 아래 있는 독립기념관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곳(병천면 용두리)에서 멀지 않다. 유관순 열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이화학당, 3.1만세운동, 아우내, 서대문형무소 순국 등 유관순 열사를 대언하는 단어는 한국인이라면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3.1만세운동의 현장이었던 아우내 장터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독립기념관과 아우내 장터, 유관순 열사 생가와 매봉교회, 유관순 열사 사당, 매봉 봉화대 등이 근거리에 있다. 우리는 그 유적지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 ‘무엇이 유관순으로 하여금 그토록 과감하고 열정적으로 행동하게 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책에서 보았던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다면 더 깊은 가슴 울림이 있을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로는 보기 드문 경우였다. 부친 유중권(柳重權), 모친 이소제(李少梯) 선생은 ‘기독교야말로 나라를 구할 방주 역할을



천안에 위치한 독립기념관.

할 수 있다’고 하여 지령리교회(현 매봉교회)를 중심으로 지역민들 계몽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었다. 학교를 세우고 농촌사람들을 깨우쳤고, 교회와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민족주의 운동에 매진했다. 유관순은 그런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다. 신앙과 애국심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당시는 딸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그 고정관념을 과감히 벗어던졌던 부모였다. 샤프(Alice H. Sharp)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유관순을 이화학당에 입학시키기도 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에 다니던 시절 정동제일교회를 다녔는데 손정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신앙에너지를 나라사랑 실천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유관순은 새벽에 기도실을 찾아 조국 해방을 위해 기도할 정도로 신실했다. 신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애국자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갔다. 유관순의 생각은 종교적 양심과 민족적 양심에서 발로된 것이었고, 양자가 서로 응축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탄압도 이겨낼 신념이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유관순 열사, 그 숭고한 이름

고종황제가 1919년 1월 21일 덕수궁에서 승하했다. 1919년은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일본의 무자비한 폭력적 횡포 앞에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던 조상들은 고종의 승하 소식에 목 놓아 울었다. 그 슬픔의 에너지를 독립운동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일본 유학생들이 일본의 심장 도쿄에서 28독립선언을 외쳤고, 그 운동에 영향을 받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고

종의 장례일은 3월 3일이었다. 국장이 나면 시골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 장례에 참여하는 전통이 있었다. 3월 3일이 지나면 모두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 그러므로 장례일 전에 거사를 시행해야 했다. 3월 2일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피한 날짜가 바로 3월 1일이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은 이화학당 비밀결사대 일원으로 탑골공원과 서울역 만세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3.1운동에 학생들이 적극 가담하자 일제는 중등학교 이상에 휴교령을 내렸다. 휴교령으로 사촌언니 유예도와 함께 귀향한 유관순은 매봉교회 교인들과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드디어 1919년 4월 1일 3천여 명이 아우내 장에 모여들며 전국에서 가장 격렬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다. 만세운동 도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관순의 눈앞에서 순국했다. 유관순은 천안헌병대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모진 고문 중에도 자신이 주모자라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풀어주라”고 외쳤다. 그 후에는 공주로 이송되었는데 공주영명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잡혀온 오빠 유관옥을 만나 부모의 부고를 전하며 울었다. 유관순은 공주지방법원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여 서대문감옥으로 이감되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유관순은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만세를 불렀다. 그때마다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 후 유증으로 18세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

유관순 열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붙잡으며 숭고한 희생을 감당했다. 나라를 구한 잔 다르크가 되고 싶었던 유관순 열사는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를 부르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서대문감옥에 있던 수많은 민족지도자들이 유관순의 이름을 기억했다.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포기하고 싶었던 민

족독립의 열망을 어린 유관순 열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죽음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유관순 열사는 무덤조차 없다. 이태원에 마련되었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고향 뒷산 매봉 한 자락에 ‘초혼묘’를 마련해두었을 뿐이다.

3.1독립만세운동의 의미

천안 아우내는 두 물이 만나는 곳이다. 두 물이 만나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내라 하였다. 우리나라는 물이 만나는 곳을 ‘아우내’, ‘아우라지’, ‘어울매’ 등으로 불렀다. 이것을 한자로 옮기면 ‘병천(竝川)’, ‘교하(交河)’ 등이다. 아우내와 병천이 같은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병천순대는 알아도 여기가 유관순 열사의 만세운동 현장인지는 모른다. 아우내와 매봉교회를 둘러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유중권과 이소제, 유관순과 유예도 등과 함께 만세를 불렀던 이름 없는 동우(同友)들을 떠올려보자. 신앙과 생활을 별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엄한 꾸짖음으로 다가올 것이다.

3.1독립만세운동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점한 이후 전 세계에 말하기를 “한국인들은 스스로 우리(일본)에게 보호를 요청했다”고 선전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보호에 무척 감사해하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며 거짓 외교를 했다. 그런데 3.1만세운동은 그것이 아니라고 외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 보호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우리는 강렬히 독립을 원한다”고 소리친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약 2백만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선 셈이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 정도였는데 만세운동을 주도한 곳은 교회였다.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 구원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주님을 열망한 것이다.

만세운동이 전 세계에 끼친 영향력은 엄청났다. 전 세계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졌을 때 강대국 수상들이 모여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대해 회의했다. 그 회의가 바로 ‘카이로회담’, ‘포츠담회담’이다. 그 자리에서 조선의 독립을 약속했다. 우리 민족에게 강렬한 독립 의지가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손을 잡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해보자. 이제는 입구에서 전시관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된다. 꼬마열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냉방이 잘된 전시관을 둘러보면 더위도 이길 수 있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유관순 열사의 생가, 매봉교회도 답사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충전하면 더욱 좋다.

‘통일아카데미’로 통일을 준비하자!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양재 믿음홀

남북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은 통일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명확한 해답을 찾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열린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가 오는 9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2018 통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교회와 성도들이 국제 정세에 발 맞춰 실제적인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2018 통일아카데미에서는 전·현

직 북한 전문가들이 국제 정세, 교회의 통일 준비 관련 강의가 이어진다. 운영관 교수(전 외교부장관), 오준 교수(전 UN대사),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등이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식의 변화’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탈북민들과 소통하는 ‘탈북민 간담회’, ‘각 전문분야별 통일 준비 전문가 간담회’ 등도 진행된다. 회비는 8만원(북한선교학교 수료자는 4만원)이다.

2018년도 통일아카데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통일과정에 함께 동참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통일위원회

일시: 2018년 9월 ~ 11월 목요일 오후 7:30 ~ 9:30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믿음홀

일시	주제	강사
09월 06일	한반도 통일정책과 방식의 변화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09월 13일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09월 20일	국제정세와 한반도	오준 교수(UN대사)
09월 27일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방식의 변화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10월 04일	북한 핵과 한반도 평화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10월 11일	국제정세와 한반도	오준 교수(UN대사)
10월 18일	한반도 통일정책과 방식의 변화	김흥광 대표(NK지식인연대)
10월 25일	통일 준비 (1) 전문가 간담회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10월 31일	통일 준비 (2) 전문가 간담회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11월 07일	통일 준비 (3) 전문가 간담회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11월 14일	통일 준비 (4) 전문가 간담회	정진호 교수(평양화학기술대학)

문의: 010-9064-608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문의: 010-9064-6080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 사랑이자 복음”

부천 누리맘, 7년째 어린이집 식사 봉사

부천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 소속 ‘누리맘사역팀’이 7년째 부천몽골교회(서기원 목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섬기고 있다. 누리맘사역팀은 부천몽골교회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먹을 점심식사를 만들어주고 있다. 매주 한 번씩 찾아가 어린이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12일에도 누리맘사역팀 소속 임은미 집사, 차윤숙 집사, 최성아 성도가 부천몽골교회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어린이들과 교사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서기원牧사는 “후원과 헌금이 미미해서 운영이 어려운데 누리맘사역팀의 섬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지 모른다”고 했고, 황하람 교사는 “누리맘사역팀의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복음”이라며 “나도 누리맘사역팀처럼 섬기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다.

누리맘사역팀 임은미 집사는 “부천몽골교회 어린이집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몽골에 돌아갔을 때 한국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한편 부천몽골교회 어린이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체능을 가르쳐 줄 자원봉사자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나 의류 등의 후원 물품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10-8200-7623

양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캠페인

식탁 교제, 이름을 불러줍니다, Standing Fellowship

지금 양지 온누리교회에서는 모두가 행복해지는 캠페인이 한창이다. ‘식탁 교제(Stick Fellowship)’, ‘이름을 불러줍니다’, ‘Standing Fellowship’ 캠페인이 그것이다.

식탁 교제는 8월 한 달 동안 성도 21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서 테이블 리더들과 함께 식사하는 캠페인이다. 오병이어홀(식당)에서 진행된다. 식탁 교제 캠페인에 참가를 원하는 성도는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1층 엘리베이터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Stick)를 뽑으면 된다. 그 막

대기에 적힌 숫자 테이블에서 테이블 리더인 안태환 장로, 박대호 장로, 차준주 장로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 된다.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족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새신자 임정호 성도는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면서 어색함이 사라지고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름을 불러줍니다’와 ‘Standing Fellowship’은 식탁 교제 캠페인의 일환이다. 이름을 불러줍니다 캠페

인은 매월 넷째 주 주일에 진행된다. 이름표에 적힌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캠페인이다. 호칭은 형제자매다. Standing Fellowship은 매주 진행된다. 성도들이 함께 다과를 나누는 캠페인이다.

권명순 권사는 “이 캠페인은 성도들이 격의 없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고, 윤지성 성도는 “더 많은 성도들과 알게 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누리맘사역팀이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나눠 담고 있다.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생 모집

9기 8월 26일, 10기 9월 12일까지 신청

일대일사역팀에서 9기와 10기 일대일 양육자반 훈련생을 모집한다. 9기는 8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빙고 선교관 403호에서 진행된다. 최성석 목사가 인도한다.

10기는 9월 16일부터 2019년 1월 6일까지 매주 주일 오전 8시 10분

서빙고 선교관 401호에서 진행된다. 박철웅 목사가 인도한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9기는 8월 26일까지, 10기는 9월 12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220

양지 일.하.세. 아카데미 8월 25일 개강

양지 온누리교회 일.하.세.(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아퀼렐홀에서 진행된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교재비 포함)이다.

일.하.세. 아카데미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스도인의 직업관’, ‘일터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관’, ‘일터에서의 성공: 그리스도인의 성공관’, ‘일터에서의 대인관계’, ‘일터에서의 신앙생활’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31-331-8171

사회선교 ‘엔젤트리’ 자원봉사자 모집

9월 15일~12월 20일 사연 입력 및 전화응대

사회선교부에서 ‘엔젤트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엔젤트리 자원봉사자로 선발되면 9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기간 조율 가능) 엔젤트리 소개 및 안내, 사연 입력, 전화 응대 등을 돕는다.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장경식 장로(사회선교부)는 “엔젤트리는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보내주는 사랑실천운동”이라며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엔젤트리는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익명의 천사들이 선물을 보내주는 행사이다. 온누리교회는 2015년 연말부터 시작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바로 잡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 4면에 보도된 ‘이혼한 남편을 호스피스 병상에서 만났다’에서 성도의 올바른 한자표기가 ‘聖徒’ 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남양주 와이무슬림 개강

8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와이무슬림’을 개강한다. 8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이슬람과 무슬림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기도하기 원하는 선교사나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와이무슬림에서는 ‘무슬림에게 다가가기’,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이슬람의 팡창의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31-565-9686

예수사랑부 스태프 간증



/ 문찬수 성도(예수사랑부)

나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한다

나는 이제껏 걱정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 지금도 무엇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당장 다음 달 카드 값도 걱정이다. 그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달 카드 값이 걱정이다. 요즘처럼 더울 때는 전기세 걱정, 가족의 건강 걱정, 사업의 안정화, 자식들 걱정이 밀물처럼 밀려온다. 날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불안해진다.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앞선다.

나는 걱정이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어린 시절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내가 언급했던 걱정들과 같은 내용이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못 믿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작은 걱정 속에 삶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내 삶 속에 과연 걱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 요즘 들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결론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사랑부(말달장애청년들의 예배모임)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 아들도 지적장애 2급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곳은 온누리교회 안의 또 다른 천국이다. 순수

한 청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바쳐 춤추고, 뛰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예배드린다. 예수사랑부 청년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도 않는다. 아마 걱정할만한 지적 능력이 안 되어서 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수사랑부 청년들은 주일설교를 듣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즉각 반응한다. 한 청년이 나에게 “선생님 사업 잘되세요?”라고 물었다. 나는 “좀 힘드네, 이것저것 걱정도 많고”라고 대답했다. 그 청년이 “걱정 같은걸 왜 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분명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라고 말하며 나를 위로해줬다. 도대체 누가 선생이고 학생인지 모르겠다. 그 청년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창피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나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알량한 지식과 알팍한 수로 자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다. 나의 잘못된 태도를 회개한다. 주님을 의지하면 영원히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살 것이다.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는다.

양재 순장학교 간증문



/ 주동욱 순장(도곡공동체)

예수 향기 나타내는 순장

“순장의 다짐! 나는 순장이다! 나는 순원들을 치유하는 목자이며, 순원들을 섬기는 청지기이며, 순원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이다.”

매 수업마다 외치던 ‘순장의 다짐’이 순장학교를 끝마친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주님은 내가 고백한 순장의 다짐처럼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순장학교가 개강하기 전 나는 인생의 두 가지 큰 변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회사를 은퇴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천국으로 가신 것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두 가지 일 모두 큰 아픔을 동반하는 시련이다. 하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내가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다.

나는 과거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순장 사역을 피해 왔다. 그러던 중에 회사의 여러 복잡한 문제로 심신이 지쳐갔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만 회사 일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순장사역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다. 나는 자의도 타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순장사역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번 순장학교를 통해서 깨

달았다.

순장학교를 마치면서 내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내 가족, 순 식구, 동료 등 어느 누가 되었든 간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생의 자랑과 출세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려 한다. 또 순장학교를 통해서 순장이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리더십이다. 이제 내 가까이 있는 가족, 순 식구들의 발을 씻겨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슴 따뜻한 순장이 될 것이다.

순장을 맡기 전에는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었다. 주일예배와 순모임보다 회사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만 예배에 참석했다. 그러나 순장학교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보좌의 상속자임을 깨달았다. 상속자로서 주체적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변화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순장이 될 것이다.

프랑스어예배 스태프 간증



/ 박희란 팀장(프랑스어예배)

프랑스어예배는 선교의 통로

온누리교회 프랑스어예배는 2015년 1월 11일부터 시작됐다. 오늘(8월 12일)이 188번째 예배다. 나는 2018년 1월부터 예배팀장으로 섬기고 있다. 팀장으로 섬기면서 예배를 위해 많은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팀장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각 팀원들이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살피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한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럴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고 있다.

프랑스어예배는 외국어예배보다 보니 온누리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타 교회 교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 그러나 언어의 장벽 때문에 꾸준히 참석하는 성도들은 약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적은 숫자지만 가족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있다.

프랑스어예배는 대형교회 안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다. 프랑스인, 아프리카인, 불어를 구사하는 미국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프랑스어 예배에 참석하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미비하다. 프랑스어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불어

권에 살고 있거나 불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프랑스어예배에는 한국어 통역도 되기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도 참석한다. 또 많은 분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 진행되는 성경공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경공부는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오후에 진행된다. 한국어 통역이 있어서 불어를 잘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석해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다.

양재 2000선교에서도 프랑스어예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북부 아프리카 대부분이 무슬림이고,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들이다.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예배를 선교의 통로로 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프랑스어예배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젊은 세대들을 통해서 중북부 아프리카를 복음의 물결로 덮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아름다움을 차려입고 동트는 곳에 기꺼이 나아올 것입니다. 주께는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시 110:3).

관계기술훈련학교 간증



/ 강희찬 성도(강남D공동체)

‘기쁨과 평안 그리고 온유한 보호자’

7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관계기술훈련학교는 트랙0, 트랙1, 트랙2로 나뉘어 강의가 진행됐다. 우리 부부는 크리스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트랙2에 참가했다. 우리가 관계기술훈련학교에 참석하게 된 계기가 있다. 2009년 하와이 열방대학 상담학교에서 짐 와일더 목사를 만나 관계기술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우리는 온누리교회 회복사역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2015년 짐 와일더 목사님이 회복축제 주강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했고, 이후 관계기술훈련학교와 세미나 과정들을 수강했다. 현재 나는 관계기술학교에서 스태프로 섬기고 있으며, 이번 2박3일 관계기술학교에서는 훈련생으로 참석했다. 지난해 트랙1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이 주시려는 회복을 다시 받고 싶은 기대가 있었다.

그동안 회복사역에서는 주로 상처와 치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관계기술학

교는 과학적인 이론을 통해 마음을,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기술을 배움으로 행동을 바꿔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복의 핵심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탄력성을 배우면서 결국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다른 연약한 자를 섬기는데 있다.

관계기술훈련은 파트너와 함께 배운 내용을 연습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줬다. 아내와 나는 이번 세미나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통해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나는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지속적인 관계기술 연습을 통해서 내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크리스 목사님을 통해 온유한 보호자의 모델을 직접 경험했고, 강의를 통해서도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협력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장로칼럼

공감은 사랑



이광순 장로
(노원공동체)

올해 초부터 노원공동체는 박시형 목사님, 대표 장로, 다락방장, 심방사역을 담당하는 권사님 두 분 등을 주축으로 각 가정을 심방했다. 지금까지 5개 다락방 중에서 3개 다락방 심방을 끝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개 다락방을 심방할 계획이다. 처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개별심방을 꺼려했다. 심방 준비단계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심방을 시작하니 큰 은혜가 있었다. 그로 인해 공동체 식구들의 심방 요청이 쇄도했다. 각 다락방 약 90% 이상이 개별심방을 요청했다. 매 순간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

심방하면서 크게 깨닫게 된 것 중 하나가 공감의 필요성과 공감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심방 중에 각자의 인생에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셨던 주님에 대한 간증을 나눴다. 심방은 주께서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섬세하게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하신다.

문득 “공감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공감 없는 사랑은 가식적인 행위이다. 또 공감이 없는 성도 간의 교제는 진정한 교제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 활동과 사역이 공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

최근 탈북민 교회를 섬기고 있는 탈북민 출신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교제를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가슴 아픈 말을 들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남한 교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방황의 주된 이유가 대한민국의 교회와 교인들이 탈북민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성도들이 탈북민들을 경제적, 물질적으로만 도우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오히려 탈북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잘못된 섬김은 탈북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남긴다.

혹시 온누리교회도 공감하려는 노력 없이 탈북민, 불신자, 농어촌교회, 선교지 원주민에게 복음전도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 내 생각과 방식대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는 안 된다. 겉치레만 가득한 사랑 행위로 교만하고 무례하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

상반기에 진행된 노원공동체 심방의 클라이맥스는 목사님과 심방사역자들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축복의 시간이다. 권사님들이 심방 받은 자매들을 아무 말 없이 끌어안아주는 것이었다. 그 순간 심방을 받은 자매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슬픔과 고통의 흐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고,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그 자매들의 상황을 아시고 공감해주고 계셨다. 자매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은 주님의 공감과 위로에 화답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평강의 눈물이었다.

오늘 당신은 가족, 이웃과 어떤 공감을 나누었는가? 또 어떤 공감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서로 공감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성숙한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권사칼럼

내게 맡기신 사명



문상아 권사
(이촌공동체)

온누리교회에 출석한 지 20년이 훌쩍 넘었다. 나는 평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많았다. 그래서 초신자들을 섬기는 부서가 교회 안에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온누리교회에 ‘열린새신자예배’가 생겼다. 나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새신자들을 섬겼다. 내가 섬겼던 새신자 중 몇 분은 지금 순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

나는 열린새신자예배뿐 아니라 여성사역도 섬겼다. 여성사역을 섬기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여성사역은 여성들만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공동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그곳에서 연합과 화합의 중요성을 배웠다. 또 아웃리치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방법을 배웠다. 여성사역을 섬기면서 이기적이고 그릇된 나의 본성을 발견했다. 내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인투에서 청소년 사역도 했다. 인투에서 사역하다 보면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한 동성애자를 우연히 알게 됐다. 처음에는 동성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다. 그때부터 동성애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동성애에 대해 공부했다. ‘바른성문화위원회 한국민연합(이하 바성연)’이라는 단체도 알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성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바성연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특히 동성애 관련된 사역은 더욱 그렇

다. 동성애는 성 문제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다.

동성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선천성과 후천성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동성애가 유전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안 낳는데 어떻게 유전이 되겠는가? 이런 잘못된 지식이 교회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그들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이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 처음 바성연에서 일할 때 기자회견과 집회 참석,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다.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지난겨울 여성가족부에서 ‘성 평등 정책’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나는 3주 동안 여성가족부 앞에서 오전 7시~9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인 시위를 했다. 사람들에게 전달지도 나눠줬다. 영하 18도에 바람까지 세게 불어서 나의 몸은 얼다 못해 눈까지 시렸다. 세종시에서 성 평등 정책과 관련된 마지막 집회를 한다고 해서 대전팀들이 집회를 진행했다. 감사하게도 여성가족부에서 발의한 동성애 악법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김상수 목사
(도곡공동체)

2017년 5월 11일 재미교포 한나 김씨는 24개국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찾아가 한 분 한 분에게 큰절을 올렸다. 그녀는 퇴역한 노병들에게 한국 사람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나 김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잊혀져 가는 전쟁을 기억에 남겨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어떤 노병사는 그를 보며 이런 말을 했다.

“내 손주들도 이제는 나에게 전쟁이야기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청년이 나 같은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이 세상에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언제 나 따지고 계산하기를 좋아한다. 손해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섬기고, 손해를 보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은 은혜의 계산법이 세상의 경제적 가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은혜의 사람을 세상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먼저 알게 되는 단어가 ‘은혜’이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잘 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가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의 영혼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사실 구원의 가치는 공짜라기보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값진 은혜를 의미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고귀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그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무더운 여름에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해외 아웃리치와 농어촌교회를 찾아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국내외 아웃리치를 떠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매우 강했던 분들이었다. 특히 초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와 그 후손들은 4대에 걸쳐 100년 이상 가난한 조선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하셨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빛을 밝히는 길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6월 25일이 되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기념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다. 청와대에서는 그들을 초대에 고마움을 표

시한다. 그 식사자리에서 한국 대통령이 연로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이 여러분 덕분에 발전하여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한 노병이 인상적인 대답을 남겼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은혜를 갚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다. 하나님께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이 은혜를 갚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값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감격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일평생 사랑의 빛진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갚는 유일한 길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마치 주님께서 싸움에서 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 의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변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악한 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강건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고, 내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나의 인격적인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면 왜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임재하심에 내어드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몇 곡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주님의 임재 약속과 함께 하심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결합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성령님께서 지원하시는 전쟁에 참가하는 군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 대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는 초신자든 오래된 성도든

상관없이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이 전쟁이 민감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 싸우는 전쟁이 있고, 장성했을 때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영적 전쟁을 피하려고, 무시하면서 살아가면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삶에서 당하는 위기는 영적 전쟁 때문이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피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도망갈 때 뒤에서 싸우는 것이 유리합니까? 사탄이 우리 등 뒤에서 공격하도록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견고해질수록 이 싸움은 맹렬해집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끝나기도 하고, 냉전도 있고, 휴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냉전도 없고 휴전도 없습니다. 사탄과의 평화협정은 없습니다. 사탄은 거짓 평화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전쟁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명예 제대도 없습니다. 의가사제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대체복무도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모순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신 중인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병역을 거부하면 적에게 자신을 밖으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영적 병역 거부를 했을 때 일어나는 비참한 사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에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가

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싸우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만일 싸움 없이 들어가라고 했다면 아무 말 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서 싸우라고 하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땅에 거인들이 있어서 두려웠고, 둘러싸인 성벽이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익숙해졌습니다. 광야에 익숙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심에 안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싸우기를 거부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불순종하고, 안일한 태도로 악의 영과 죄와 싸우기를 거부하면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크게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악의 영과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일주일 내내 적들에게 패배하고, 주일날 교회가 패배를 보고하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보호하심과 승리가 약속된 크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나아갈 때 놀랍게 베풀어 주신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박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5



박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바야흐로 여행의 계절, 바캉스(vacance) 시즌이다.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어학원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던 시절 원어민 강사로부터 듣고 또 들어도 도저히 구분되지 않았던 단어가 몇 개 있었다. 우선 'ball' (공)과 'bowl' (그릇)이다. [볼]과 [보울]을 어떻게든 차별화시키기 위해 두 볼에 잔뜩 힘을 주고, 미간에 '내 천' (川)자를 그리며 발음연습에 매진했다. "공은 멀리 던져야 하니 길게, 그릇은 움푹 파였으니 입을 오므려서" 건강부회(牽強附會, 근거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어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맞춤) 격으로라도 발음과 의미의 유사성을 연관 지었던 내 나름의 학습법에 걸려든 또 다른 단어가 있었으니 'bald' (대머리)와 'bold' (대담한)였다. 원어민의 발음을 아무리 들어도 [보울드]와 [보울드]는 내 귀를 간지럽힐 뿐이었다. 머리가 벗겨진 것과 대담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기에 발음이 이렇게 유사하단 말인가. 한참을 고민하다 "머리가 벗

겨진 사람은 대담하다"라는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다.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화가 렘브란트. 그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친구 아담 엘스하이머는 세밀화 동판 위에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기로 유명한 화가이다. 인물화와 풍경화에 능했던 엘스하이머는 유럽의 풍경화 발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빛을 연구해 태양, 달, 햇불, 벽난로에서 나오는 빛의 효과를 작품 속에 탁월하게 적용했다. 그의 작품 중에서 단연 최고의 작품은 런던 내셔널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몰타의 사도 바울'이라는 그림이다. 엘스하이머가 1600년까지 로마에 체류하면서 사도행전 28장에서 소재를 따온 이 작품은 난파당해 몰타섬에 체류하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밤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이고, 폭풍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햇불이 절벽 꼭대기를 밝히고 있고, 일렁이는 바다 위에 부서진 배의 유해가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고,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모습이 절묘하다. 그림 앞쪽에 모닥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과 원주민의 도움을 받아 젖은 옷을 말리고 있는 사람들 사이로 위험한 독사를 움켜잡고 있는 사도 바울의 헤어스

대머리 총각의 대담한 여행

타일이 유독 눈에 띈다. 민승민승하게 벗겨진 대머리이다.

철저한 신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그려진 당대 유명 화가의 그림은 그 자체가 역사이다. 전승되는 여러 기록물 중 하나인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고, 다리가 휘었고, 몸이 다부지며, 미간이 아주 좁고, 코가 긴 편이었다' 고 한다. 외모지상주의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서 이 정도 외모를 가졌다면 최악 아닌가! 개인 간 우열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패까지 좌우한다고 믿는 이 루키즘(lookism)은 마치 몰타 섬의 거센 폭풍우처럼 이 시대를 덮친 지 꽤 오래된 사회풍조이다.

옥중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와 찬양, 환희와 기쁨이 넘친 편지글인 빌립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바울이 결혼과 취업, 이 땅에서 모든 기득권을 해(害)로 여기는 이유를 적시해 놓았다. 바울은 자신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거나 심지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빌 3:8).

한의학에서는 '담(膽)'이라고도 하는 쓸개를 대담한 용기를 내는 장기(臟器)로 설명한다. 굳이 한의학의 설명을 빌리지 않더라도 '담이 크

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있는 것이고, '쓸개가 빠졌다'는 것은 용기가 없이 비겁하고 쫓대가 없는 말임을 누구나 다 안다.

3차에 걸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거리가 자그마치 1만7천 킬로미터였다. 그의 쓸개(膽)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 크기였음이 분명하다. 안락한 가정이나 세상의 부귀영화 따위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던 대머리 총각은 그렇게 대담한 여행으로 생을 마쳤다.

혹시 Acts(사도행전) 28장을 쓰겠다고 자임(自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Acts 28장의 마지막 절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죽을 고생을 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여행 목적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그토록 힘든 여행을 끝까지 마칠 수 있게 한 원동력 말이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행 28:31).

그 여행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고, 자세히 가르치고 싶은 무언가가 있는 여행이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아름다운 여행은 내 영어 발음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대머리(Bald) 총각의 대담한(Bold) 여행'이었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워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서충관 팀장(02-3215-3176)

2019년 상반기(1월~7월) 온누리교

회 결혼예배 예약 추천 안내

일시: 9월 13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1층 두란노홀

자적: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이면 가능, 단 예비신랑, 신부는 등록

교인(타 교회 상관없음)이어야 함.

신청인: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형제나 친척의 대리 예약은 불가함)

준비: 예약금 50만원 및 교인확인증명서

(예비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교인확인증명서'

지참)

방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번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

약(추첨행사 시작 10분전까지 도착

하시기 바람, 오후 7시 이후 입장

하시면 순번추첨 예약이 모두 끝난

후 접수)

문의: 서빙고(02-3215-3179)

양재(02-3215-3178)

샘물중고등학교 교직원 모집

모집: 물리(공통과학)

마감: 8월 27일(월)

자세한 내용은 www.smca.or.kr 참고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 방영

출연 배우 서태화, 사진작가 이요셉,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한국교회 믿음의 첫 사람을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



9편 - 8월 14일 방송

작은 약방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꿈
'배성두 장로'



10편 - 8월 21일 방송

순결, 청빈, 순명의
삶을 살았던 수도신앙의
선구자 '이세종 선생'과
'이현필 선생'



11편 - 8월 28일 방송

우리 민족의
자주적 신앙을 꿈꿨던
독립운동가
'이만집 목사'



12편 - 9월 4일 방송

험한 강원도 산골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한
지계 전도사
'이덕수 전도사'